

## 영화에 투영된 식민지 시대

《투사하는 제국 투영하는 식민지》  
김려실 지음 | 삼인 | 352쪽 | 값 18,000원



구한말 영화가 도입 될 무렵부터 1919년 처음 조선인의 손으로 연쇄극이 제작되고, 1926년 '무성영화기 최고 걸작'이라는 나운규의 <아리랑> 탄생을 거쳐 1945년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조선영화는 약 180편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방기의 혼돈과 6·25전쟁의 결과 이들 식민지 조선의 영화 필름은 대부분 소실되었고, 따라서 당시의 영화사는 대부분 2차 자료에 의존해 기록되었다. 저자는 "기존의 한국 영화사가 노정하는 서술상의 불균형은 근본적으로 식민지 시기를 '수탈'과 '저항'으로 재단하는 이분법에 기인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친일영화를 비판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영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정당화해 버릴 위험이 있고, 논리적으로는 일본인이 일본을 위해 만든 '국책영화'에 대한 비판의 여지를 좁히고 만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항일영화 대 친일영화, 민족적 전통 대 종속적 모방, 리얼리즘 대 신과 멜로드라마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영화에 비친 일제(日帝) 국가주의의 그늘을 추적한 이 책은 '타자의 내셔널리즘을 비판하다가 스스로 내셔널리즘에 빠지는 일'을 경계하고 있다.

## 흔적으로 본 우리 산야 동물들의 생활상

《야생동물 흔적 도감 - 흔적으로 찾아가는 야생동물 생태 기행》  
최태영·최현명 지음 | 돌베개 | 303쪽 | 값 25,000원

이 책은 야생동물의 흔적을 통해 야생동물의 삶과 생활 방식, 습성 등을 설명한다. 또한 발자국의 모양과 발걸음 측정치, 배설물의 형태적인 특징과 크기, 동물 사체, 동물들이 낸 길 등 정보를 풍부하게 담았다. 《야생동물 흔적 도감》에는 두더지와 다람쥐부터 너구리, 삶, 반달가슴곰과 고라니에 이르기까지 우리

산과 들에 사는 포유동물 30여 종의 발자국과 배설물, 잠자리, 먹이 흔적, 뽕질 자국 등 야생동물의 삶의 흔적을 600여 컷의 사진과 세밀화를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많은 동물도감들이 선을 보이고 있지만 흔적을 통해 동물 혹은 자연 생태계를 조사한 책이라는 점을 높이 살만하다.



## 가요의 창에 비친 우리네 문화사

《번지 없는 주막》  
이동순 지음 | 528쪽 | 값 25,000원

가요는 우리 문화의 사각지대에서 쓸쓸한 야생초처럼 성장해 온, 민족사와 모든 생사고락을 같이 한 우리 문화의 대변인 격이다. 그러나 가요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늘 부족하고 미흡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구동성 지적이다. 이 책은 영남대 국문학과 이동순 교수가 한국 가요사 분야를 획기적으로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0년

대 중반, 한국 가요의 대명사인 가수 조영필과 노래시합에서도 이겼던 시인 김지하에게 "내가 졌다"는 일성을 받아낼 정도로 유행가를 밥 먹듯 외웠던 저자는, "노래는 기쁨이며 사랑"이라고 정의한다. 저자는 '비 나리는 고모령' '나그네 설움' '번지 없는 주막'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등 한국 애창가요들의 정서와 의미를 특유의 필체로 풀어낼 뿐 아니라 굴곡 많은 현대사의 험난한 과정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 의미를 더하는 책이다.

장동석 기자

## 아우슈비츠에서 겪은 생생한 고통의 기억들

《이것이 인간인가》

프리모 레비 지음 | 이현경 옮김 | 돌베개 | 340쪽 | 값 12,000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가, 프리모 레비. 그에 대한 기억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다.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작가라는 점과 돌연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 죽음에서 생으로, 생을 스스로 죽음으로 잇게 한 프리모 레비의 영혼이 파스하게 느껴진다.



때는 1944년 1월말 경. 그는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로 보내졌다. 그곳은 내일이라는 약속을 보장받을 수 없는 불행한 장소이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울리는 방법을 찾아 삶과 작별준비를 하는 장면들, 몸도 마음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당한 구타, 추위, 갈증. 저자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의식을 파편화하고, 그만큼 삶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준다”고 고백한다.

그가 받은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기억’이었다. 때문에 이 책은 고통의 산물이다. 그가 책에서 “나는 연필과 노트를 들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쓴다”고 고백한대로 우리는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처절한 기억들이 있지 않은가. 10개월간의 수용소 체험은 세포 하나하나에 숨어든 생각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인간을 향한 연민들로 가득하다. 1947년에 프랑코안토니 첼리가 운영하는 조그만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 책은 망각속으로 사라졌다가 1958년 에이나우디 출판사에서 다시 출판되면서 생명을 얻었다. 책을 덮으면서 다시 한번 구차하게 인간이란 정말, 정말 무엇인가, 라는 우문에 답을 찾는다.

이 책의 장점은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국과 인도, 지중해 연안의 고전 문화들,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중세와 근대 초기, 식민지 지역, 19세기 산업사회와 후기 산업사회라는 다양한 시공간을 대상으로 수많은 문헌 정리를 조사했고, 카시족, 무수오족, 투아레그족, 이보족, 하우시족, 흐몽족 등 수많은 종족과 집단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남성주의의 역사라는 것에 대항했다거나, 여성의 우월성에 대해 주장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책을 읽은 이후 행동은 독자들의 몫이다.

## 젠더의 눈으로 다시 본 세계사

《젠더의 역사》

메리 E. 위스너-헝크스 지음 | 노영순 옮김 | 역사비평사 | 376쪽 | 값 15,000원

가족, 경제생활, 관념과 법, 종교, 정치, 교육과 문화, 섹슈얼리티라는 주제를 젠더(gender)의 시각으로 연대기적으로 살펴본 역사서이다. 기존 연구서들이 젠더라는 용어를 여성사의 일부 용어로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남성과 여성, 그리고 제3의 젠더 모두를 고찰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 책의 장점은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

타미아 문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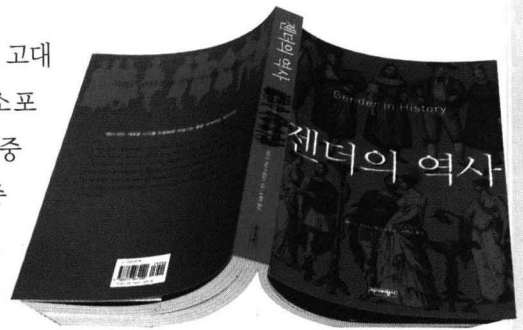
국과 인도, 지중

해 연안의 고전

문화들, 아프리

카와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중세와 근대 초기, 식민지 지역, 19세기 산업사회와 후기 산업사회라는 다양한 시공간을 대상으로 수많은 문헌 정리를 조사했고, 카시족, 무수오족, 투아레그족, 이보족, 하우시족, 흐몽족 등 수많은 종족과 집단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남성주의의 역사라는 것에 대항했다거나, 여성의 우월성에 대해 주장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책을 읽은 이후 행동은 독자들의 몫이다.



## 모든 것은 그리스로부터 시작됐다

《러브, 섹스 그리고 비극》

사이먼 골드힐 지음 | 김영선 옮김 | 예경 | 374쪽 | 값 19,800원

저자는 고전에서 서양의 역사가 오랫동안 덧씌운 엄숙주의라는 베일을 벗겨냈다. 고상한 가치만을 다루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고대 그리스인들의 몸, 사랑, 섹스, 오락 등 내밀한 생활에 대해 가졌던 관념과 정서까지 헤아리고 있다.

책은 러브, 섹스

와 결혼, 선량한

시민, 오락, 할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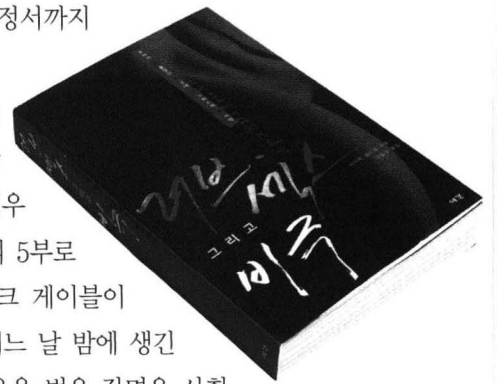
드와 프로이트의 5부로

구성됐다. 클라크 게이블이

주연한 영화 <어느 날 밤에 생긴

일>(1934)에서 옷을 벗은 장면은 사회

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정보를 독자들에게 먼저 던지면서 이 책은 전개된다. 남성 몸을 드러내는 방식에는 역사가 있다고 저자는 기술하고 있는데, 과연 완벽한 몸의 이미지는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책 곳곳에 실린 관련 사진 자료들은 민망하고 낯 뜨겁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그릇이나 집안의 장식품으로 애용되던 것이라는 설명에 고대 그리스란 어떤 곳이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탄탄한 이론들을 토대로 흥미로운 문제로 논리를 엮어나가는 저자의 결론은, 현재의 모습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출판사 제공 이미지]



정윤희 기자

## 가난한 시인 마음 풍요롭게 한 강화도 살이 기록

《미완한 마음》

함민복 지음 | 풀그림 | 184쪽 | 값 9,500원

무소유 시인 함민복  
씨가 산문집을 냈다.

강화도 마니산 끝자락에  
터를 잡은 지도 10년 세월.

그는 어느덧 물때를 얼추 짐  
작할 정도의 바닷가 사람이 다

됐다. 통통배를 타고 그물 치러 가

는가 하면 타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동지애를 느끼며 술 한  
잔, 회 한 점 나누면서 삶을 향유하고 바다풍경 속에 녹아들고

있었다. 사십 중반을 넘기며 시인도 나이에 대해 자주 생각한

다. 자신을 둘러싼 사람과 사물, 자연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늘 안쓰럽고 조심스럽다. 강변마을, 전원마을로 이름붙인 아파

트 단지가 강변과 전원을 해치면서 우뚝 서 있는 것이 폭력적

으로 느껴지고, 늙으신 노모에게 혼자 산다고 말하는 것이 자

꾸 미안하다. 여름계 집 근처에서 발견한 뱀을 한 마리 죽였는데

그 새끼가 도망치는 모습을 본 후로 뱀을 위해 시 한 편을 적

어준다. 마당에 떨어진 고욤나무 잎새, 친 동기간처럼 살가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계절마다 하나씩 자리잡아가는 일상의

작은 습관들까지. 무심코 지나칠 법한 주변의 미세한 변화도

시인의 눈을 거쳐 글로 옮겨지면 가슴 따뜻해지는 한편의 다큐

드라마가 된다. 행간마다 넉넉하고 깊은 시인의 마음이 드러나

서 그의 시를 더욱 기대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 편지로 보는 '우리말 나들이'

《우리말 편지 1, 2》

성제훈 지음 | 뿌리와의파리 | 264쪽 | 값 9,800원

어쩐지 '우리말'

이라는 제목이

들어가면 최근

에 쏟아져 나온 관

련 책들과 내용에 차

별이 없을 것 같다는 선

입견이 생긴다.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말 사전

은 다다익선이겠다. 그러나 《우리말 편지》는 한마디로 차별적

이다. 기획을 잘 한 것도, 지면을 최대한 활용해 많은 단어를 풀



이하지 않았지만 '편지'라는 제목처럼 아날로그적인 감상과 재  
미가 전달되는 그런 편지글이다. 저자는 국어학자가 아닌 '농학  
박사' 인데다가 책에 담긴 편지 글 마다에는 저자의 '나눔철학'  
이 담겨 있다. 저자 스스로 공부하면서 알게 된 우리말 상식을  
동료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내던 것이 입소문을 타고 수천 명  
수신자를 탄생시켰다. 2003년부터 발송한 우리말 편지를 뽑아  
계절 순으로 배치해 엮었다.

## 특별한 이력의 역사학자가 되돌아본 흥미진진한 20세기

《미완의 시대》

에릭 홉스봄 지음 | 이희재 옮김 | 민음사 | 692쪽 | 값 25,000원

세계 최고 마르크스주의

자 역사학자인 에

릭 홉스봄의

자서전. 머리

말 제목이 '가

장 별스럽고 끔찍한 세

기'이다. 저자 스스로는 "유명인

이나 공인이 아니고 중요한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결정을 내린 사람도 아니다"라며 쑥스러워하지만 책에 담

긴 내용은 자서전이라기보다 독특한 역사서라 평할 만하다. 우

선 그는 한 세기에 조금 못 미치는 구십 평생 동안 20세기의 모

든 사건을 온몸으로 겪었으며 세계적인 마르크스주의자 역사가

로 이름을 알렸다. 대개 한 개인의 정체성을 태생이 어디인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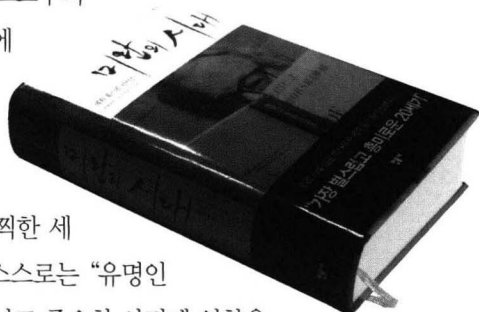
따져 묻는다면 그는 이집트에서 출생하고 독일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후 영국 국적을 갖고 살아온 코스모폴리탄이다. 이런 요건

들이 그의 세계관을 평범하게 만들었으리 만무하다. 저자 역시

자신에 대해 "20세기 역사를 서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

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책의 구성은 총 스물 세 장으로 나뉘  
다. 16장까지는 정치 격변기 속의 개인사를 실었고 17, 18장은  
역사가로의 활동과 과정을 그렸다. 19장부터 22장까지는 홉스  
봄이 머물렀던 세계의 도시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19세기를 다룬 3부작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  
대》에 이어 20세기를 그려낸 《미완의 시대》는 "학문적 엄격성  
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 속에서도 극단의 시대가 지냈던 열  
정을 가지고 쓴" 한 역사학자의 객관적이면서 냉철한 시대 분석  
서다. 책의 두께가 무색할 만큼 빠르게 읽힌다. **★**



송보경 기자

## 석가의 공(空)과 예수의 나눔이 만날 때

《예수, 석가를 만나다》 이명권 지음 | 코너투스 | 232쪽 | 값 12,000원

《예수, 노자를 만나다》라는 책으로 이 시대 비움과 나눔의 철학을 보여주었던 신학자 이명권이 이번에는 '공(空)의 깨달음과 없이 있는 하나님'을 주제로 예수와 석



가의 창조적 만남을 시도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예수와 석가는 서양문화와 동양문화의 정신적 근간을 이루는 두 인물이다. 예수와 석가가 만난다는 것은 서로 이질적인 두 문화가 소통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리 쉽지만은 않다.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신앙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서로의 만남에 대해서 폐쇄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저자는 예수의 평화·사랑의 정신이 석가의 평등·자비 사상과 행복한 만남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예수와 석가는 모두 인간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주려던 이들이다. 불교에서는 평화로운 삶을 살기위한 방식에 대해 여러 경전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경전들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반야심경》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교적 입장과 대화가 가능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비교, 논의한다. 불교의 핵심인 공(空)의 개념으로 예수의 '나눔'을 해석하는 등 종교 간의 특별한 대화를 시도한 책이다.

## 단편 소설의 전범, 이효석을 읽는다

《이효석 단편 전집》(전2권)

이효석 지음 | 가람기획 | 각권 580쪽 내외 | 각권 값 16,000원

가람기획의 '다시 읽는 우리문학' 시리즈 7번째 책이 출간되었다. <메밀꽃 필 무렵>으로 단편 소설의 전범을 남긴 순수과 서정의 작가 이효석의 작품집. 프로 문학의 동반자 작가로 불리던 그는 1930년대 이르러 순수문학으로 방법론을 전환하면서 문단의 대표적 소설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임화와 같은 이조차 그의 <메밀꽃 필 무렵>에 대해 "내용의 공박을 책하기엔 너무나 탁마된 형식!"이라고 극찬했을 정도이다.

이 책에는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효석이 남긴 거의 모든 단편 소설이 실려 있다. 또한 서두에는 문학평론가 김우중 씨가 이효석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을 달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효석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그의 동반자적 성향의 소설부터 순수 문학을 다룬 소설까지 전작품을 통해 작가를 깊이 읽기 할 수 있는 반가운 책이다.



## 교육은 사회와 제도 이전의 '자연주의'

《에밀》 장 자크 루소 지음 | 민희식 옮김 | 육문사 | 892쪽 | 값 30,000원

루소의 《에밀》이 불문학

자 민희식 교수에 의해 번역 출간되었다.

자연주의 교육사

상서의 대명사로 불리

는 이 책은 소설의 형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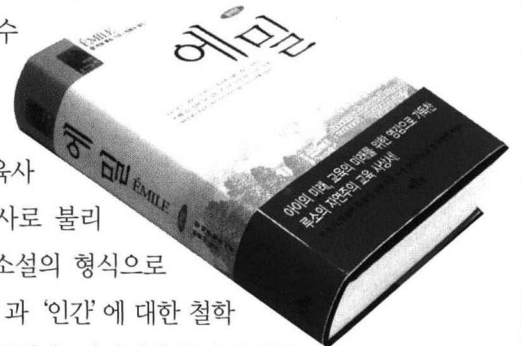
루소의 '교육'과 '인간'에 대한 철학

을 풀어낸 작품이다. 당시 《에밀》이 출간되

자 학교 교육을 비판하고 교회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에서는 분서(焚書) 처분을 내렸고, 저자인 루소는 범법자의 신세로 스위스, 영국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다.

주인공 에밀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아이를 '혼자 있게' 해 줌으로써 자연의 섭리에 따라 양육한다는 것이다. 《에밀》의 유명한 첫 구절은 "신이 만물을 창조할 때에는 모든 것이 선 하지만 인간의 손에 건네지면 모두가 타락한다"이다. 그에게 교육은 사회와 제도 이전의 '자연주의'이다.

물론 주인공이 제시하는 '유토피아'가 허구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 설득력이 떨어지는 면도 있지만 《에밀》이 출간된 지 몇 백년이 흐른 오늘날도 그가 말한 자연주의 교육의 중요성은 그 빛을 잃지 않고 있다. **한문**



이주연 기자